

전 강 상 담 실

담당의사 박 인 규
 <한국기생충박멸협회 부설의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기생충질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문의 이외에도 일반질환에 대한 문의도 환영합니다. 의료계 권위자와 상담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14세의 소녀로 병원에서 진찰한결과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배가 아파 구충제를 먹었는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요. (경기도 김포군 이정혜)

【진료】 학생의 증상(배앓이)으로 보아 반드시 기생충에 감염되었다고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기생충에는 회충, 12지장충, 편충, 촌충,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기생충에 따라 치료약이 다릅니다. 배가 아프다고 반드시 기생충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진단을 위해 선검사를 한후 적절한 구충제를 먹어야 합니다.

당일의 신선한 변 5g정도 (밤알 크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병원이나 본협회 경기도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366-6)에 가시면 검사하여 드립니다.

【문의】 약 2년전부터 몸이 약해

지며 객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에서 X-Ray 촬영을 해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충남 연기군 황재형)

【진료】 귀하가 호소한 증상으로 미루어 폐디스토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폐디스토마는 가재나 게를 생식하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감염되는데 기침, 객담, 흉통 때로는 각혈도 있어 폐결핵과 흡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재래의 습성대로 흥역하는 아이에게 가재즙을 먹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폐디스토마의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객담검사와 대변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하루종일 (24시간) 받은 객담과 신선한 변 밤알크기 (5g 정도)만큼 채취하여 인근종합병원이나 본협회 충남지부 (충남 대전시 대흥동 370-15)로 직접가지고 가시면 됩니다.